

리뉴얼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둘러보니

1920~30년대 학생운동의 본산 지역 예술가 꿈의 무대 '대변신'

구시청 인근 옛터...작년 재개관
200인치 빔프로젝터·음향시설
140여개 좌석 등 편의시설 갖춰
예술가에 무대 제공...공연 유치도

"광주 부호 최명구가 1만여 원을 들여 지은 후 시민사회에 기증했던 '흥학관'은 지역 사회 문화운동의 본산입니다. 이곳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은 2년 전 시작됐어요. 지역 예술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터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였죠."

1921년 문을 연 흥학관(興學館)은 광주청년학원과 광주청년회 사무실로 사용되며 지역 청년 활동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의회 의사당으로 쓰이는 등 지역사적 의미도 남다르다.

옛 흥학관(동구 광산동 문화전당로 35번길 16-4)이 작년 12월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으로 재개관(12월 27일자 광주일보 16면)한 뒤,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알토 색소포니스트 짐 스키데로 내한공연을 성료했으며 오는 14일에는 'Valentins Jazz concert' 등이 예정돼 있다.

내부에는 미니멀하지만 세련미 있는, 관람 편의성을 높인 좌석과 고급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다. 5일 방문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소규모 콘서트, 세미나, 영화 감상회를 진행하는 데 손색없는 복합 공간이었다.

200인치 빔프로젝터와 풀 사이즈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며 출연자 대기실, 로비, 음향시설까지 마련됐다. 객석거리 1m에 달하는 140개 관람석(장애인석 2개 포함)은 부채꼴로 배치돼 넓은 시야각을 자랑했다.

주국전 대표는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흥학관 재개관은 수익창출 목적보다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 연유에서 공연장 대관료와 부가사용료(전기세 등)를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것.

이는 광주 청년들의 문화예술, 교육 목적으로 건립됐던 흥학관의 본령과도 맞닿는 측면이 있다. 당시 방정환, 안재홍, 송진우 등 유명 인사들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던 흥학관은 학생·청년계몽운동의 요람이었다. 영세민의 자녀와 문맹들을 모아 무료 교육을 펼쳤던 점도 의미를 더한다.

남구 장애인예술단 감독을 역임한 주 대표는 광주 문성고에서 3년 전 음악교사로 정년퇴임했



흥학관 재개관을 기념해 진행했던 '재즈 페스티벌'에서 알토 색소포니스트 짐 스키데로가 연주하는 모습. <흥학관 제공>



총 140석 규모에 달하는 내부 관람공간. 객석 간 거리가 1m에 달해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다. 이후 호신대 황태용, 박수용 교수 등과 의기투합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처음엔 건물 7층을 염두에 두었지만 클럽으로 운영되다 유류 공간으로 방치된 지하 1층을 리모델링했다.

입소문을 타자 예술가들의 공연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14일 '아트플레이넷'을 비롯해 23일 '힐링첼리스트', 26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이 무대에 오른다. 3월 21일에는 일본 재즈 피아니스트 Yuki Futami도 낭만을 선사한다.

건물 소유주 이범식 씨는 "전체 600여 평에 달하는 흥학관 옛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분할되고 이후 20여년 전 건물을 인수했다"며 "처음에는 상가 임대업을 고려했지만 지역 예술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트스페이스'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간 리모델링이 끝나고 110평에 달하는 지하 1층은 생기가 가득한 공연장으로 바뀌었다"며 웃어 보였다.

이날 둘러본 공연장 내부는 흡음 재질로 만들어진 벽면과 레일식 조명, 신규 음향설비가 배치돼 소·중규모 공연을 진행하는 데 손색이 없

어 보였다.

무대 플로어는 흡음 효과를 위해 트럭 두 대 분량의 모래를 채웠다. 드럼이나 스피커 진동이 바닥에 전달되면 플로어가 '우퍼'처럼 공명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최적의 음향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공연했던 재즈 색소포니스트 짐 스키데로는 "악기의 울림과 공명 측면에 있어 컨디션이 우수하다"는 후기를 남겼다는 후문이다.

한편 오는 14일 공연에는 소프라노 색소포니스트 주국전과 색소포니스트 박수용(호신대 음악학과)을 필두로 강윤숙(재즈피아노), 황태룡(플루트 등), 윤영훈(드럼), 한수정(베이스), 김수곤(기타)이 출연한다.

이와 함께 광주 출신 작가로 황지우 시인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황광우 작가의 인문학 콘서트 '흥학관의 역사와 의미'도 진행된다. 황 씨는 '그 시절, 광주 사람들', '운상원 일기' 등을 발간해 왔다. (전석 1만원)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작년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해남군 '땅끝순례문화관'. <해남군 제공>

지역민 가까이서 만나는 우리동네 작가

문예위 '문학상주작가 지원' 내일까지 접수...다음달 77명 선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2025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학시설을 오는 7일까지 접수 받는다. 도서관, 문화관, 서점 등을 대상으로 총 77개소를 선정할 뒤, 3월부터 상주작가 77명을 선발해 매칭할 예정이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서점, 문화관 등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활성화하고 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상주작가는 오는 5월부터 7개월 간 각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2290만원으로 작가 인건비(월 240만 원),

시설 고용부담금(월 30만 원), 문학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연 400만 원) 등을 포함한다.

작가와 사전 매칭은 불가능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주작가는 등단 3년 이상의 문학작가로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경험자(또는 운영 가능한 사람) 등이어야 한다.

예술지원본부 문학지원팀 김나영 팀장은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 제안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고 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통해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글로벌 시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시민강좌

글로벌 시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예술과 시민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이뤄야 할까.

'글로벌 시대 예술과 시민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좌가 열린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는 6일 오후 1시 연구소에서 강연을 연다. 이번 시민강좌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며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박덕규)와 함께한다.

먼저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이 '지역공동체와 글로벌 감각'을 주제로 강의 문을 연다. 이어 석연경 시인이 '글로벌 예술과 문예 창작'을,

지가는 시각문화연구자가 '지역을 살리는 영국 공공미술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시민교육 실습 진행은 홍지석(단국대), 신정아(단국대), 최수용(단국대)이 맡았으며 실습 첫 시간은 '성인 그림책 워크숍: 나만의 그림책 표지 만들기'가 진행된다. 두 번째 실습은 '나의 이야기가 노랫말을 만날 때'로 황은지(싱어송라이터), 최송희(작사가), 곽효정(연구원)이 노랫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곡도 해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 24만7천여 점

일본에 44% 최다...미국·독일 순

도난,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이 24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총 11만6961건, 세부 수량으로는 24만7718점이다.

일본, 미국 등 29개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등

801곳을 조사한 결과다.

국가별로 보면 도쿄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일본 내 주요 문화시설이나 개인이 소장한 한국 문화유산이 10만8705점으로 가장 많았다. 나라 밖 문화유산 가운데 약 43.9%에 해당한다.

미국 6만5860점(26.6%), 독일 1만5477점(6.2%), 중국 1만4226점(5.7%), 영국 1만2778점(5.2%)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나라 밖 문화유산 실태 조사를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